

다문화적 사회를 위한 토대로써 필리핀 문학의 가능성:

*Yesterday, Today, and Tomorrow*와

The Portrait of an Artist as Filipino 읽기* **

기 현 주

경기대학교

I.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부터 급증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자녀 등으로 인해 한국은 점차 다문화적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문화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다문화를 위한 정책들은 이주민과 한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외국인 관리 정책”(황정미 96)에 불과하거나 이주민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동화하는데 혹은 이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7430).

**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마닐라 소재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Ateneo de Manila University)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특별히 필리핀의 역사, 문화, 문학, 극 공연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마리아 루이사 토레스 레이에스(Maria Luisa Torres Reyes), 빈센즈 세라노(Vincenz Serrano), 오스카 캄포마네스(Oscar Campomanes), 마리아 소코로 Q. 페레즈(Maria Socorro Q. Perez), 프란시스 솔라노(Francis Sollano), 조이스린 S. 마틴(Joycelyn S. Martin)과 크리투카 쿨투라(Kritika Kultura) 소속 회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다문화 교육 역시 이러한 관주도 정책들처럼 이주민의 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일반인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과 같은 “이주민과 관련된 교육”을 다문화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한건수 119). 다문화 교육은 외국인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인이 외국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다문화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이주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 증진과 이주민과 한국인과의 상호 의사소통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이주민의 출신 국가 문화를 다문화 교육 내용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한국에 있는 아시아 이주민들은 타 지역 출신 이주민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사실 한국의 다문화적 사회 변화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는 “아시아 간 이주의 증가”이다(김민정 34). 이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필리핀은 “대표적인 해외 이주 노동자 송출 국가”(김민정 34)로 한국 내의 이주민 중에서도 필리핀 출신들이 타 국가 출신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다문화적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¹⁾ 최근 들어 한국과 필리핀과의 교류와 한국 내 필리핀 이주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한국 대학 내에 필리핀 관련 학과가 거의 전무하고, 그 외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필리핀에 대한 정규 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핀 국가와 문화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다문화 교육의 토대로써 필리핀 문학의 가능성에 대해

- 1) 2010년 새로운 사회 성원의 대다수는 아시아 지역 내의 이주자들(84%)이다(김민정 35). 그중 여성의 비율은 높은 편인데, 2005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47.4%)이 가장 많고 중국(17.3), 일본(10.6), 필리핀(8.2%) 순으로 나타났다(윤인진 254-5). 이를 보면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민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 2) 국내에 있는 대학교 특히 외국어대학교에는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 관련 학과가 있는 반면에 필리핀관련 학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줄고 “다문화주의적 사회를 위한 ‘지역 정진’ 확립과 필리핀계 미국인 작품 읽기”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필리핀에서 온 이주민들의 증가 경향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깨닫고 이들의 언어, 문화 등에 대해 감수성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필리핀 극작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우렐리오 톨렌티노(Aurelio Tolentino)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Yesterday, Today, and Tomorrow*, 1903)과 닉 호킨(Nick Joaquin)의 『필리핀 예술가의 초상화』(*The Portrait of the Artist as Filipino*, 1950)³⁾는 필리핀이 주권을 가진 단일한 국가로서 탄생하기 바로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주의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저항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기 때문에 탈식민적 관점으로 두 작품을 논의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다고 하겠다. 특별히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가쓰라 태프트(Katsura-Taft) 밀약으로 필리핀과 한국이 함께 식민주의적 침탈을 겪은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상기할 때 두 나라의 상호 이해와 연대의 의미가 각별히 부각된다고 하겠다.⁴⁾ 필리핀인의 식민역사, 식민 역사동안 지속된 저항 그리고 단일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발달에 대해 논의하는 작업은 필리핀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소통을 촉진하여서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다문화 시민 양성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 분석을 통한 문화 이해 촉진 작업은 필리핀 문학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특별히 대학에서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필리핀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개진하고자 한다.

-
- 3) 이후부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어제』로 『필리핀 예술가의 초상화』는 『예술가』로 표기하겠다.
- 4)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이미 필리핀과 한국의 식민 경험이 투영된 문학 작품을 비교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왔다. 지금까지 필리핀 문학을 한국에 알리는데 거의 독보적인 역할을 한 연접숙은 식민지배에 항거하는 필리핀과 한국의 대표적인 시 작품을 비교한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ist Poetry in Korea and the Philippines”를 저술한 바 있다. 또한 최숙인은 「제 3세계문학과 탈식민주의-필리핀의 호세 리잘과 한국의 윤동주」를 손종호는 「한국시와 필리핀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를 발표한 사실을 놓고 볼 때 한국과 필리핀의 식민 지배를 받은 공동의 경험은 분명 한국인들의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배가시킴을 시사해 준다.

II. 필리핀 문학 교육의 당위성 검토

다문화적 사회 확립을 위한 토대로써 실시되는 필리핀 문학 교육은 현재 한국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점차 기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실용적인 대학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정정호의 말대로 “사회를 유지하고 지배계급의 허위 이데올로기를 받쳐주는 이론을 창출”하는 것이 대학의 목표이자 기능이 되었다 (7). 영문학 교육 역시 이 급격한 변화의 바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각급의 상황이다. 경제논리에 의해 영문학 교육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훈의 말대로 “문학이 차지하고 있던 전통적인 위상은 우리 시대에 이미 해체”(84-5) 되었고, 한국의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실용영어가 주요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영문학자들은 이러한 영문학 교육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의 변화로 인한 영문학 교육 방향의 전환을 주장해왔다. 특별히 학자들은 그동안 한국의 영문학이 주로 영미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했음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영문학 교육을 제시해왔다.

새로운 영문학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학자들은 주로 정전문제와 문화연구, 지역학 등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다. 이형식은 정전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763), 황효식은 문화연구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면서 “기존 문학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를 통합”(80)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박찬부는 문화 연구와 지역학 연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841-842). 이들을 포함한 여러 영문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정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문학 교육은 위세가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영문학은 점차 그 외연을 확장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정전 확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문학 교육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영미문학 뿐 만 아니라 인도,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호주 등 모든 영어권 문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김영훈 88)는 사실이다. 영미 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나온 작품을 영문학 교육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고, 영문

학의 방향을 새로이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과거 서구의 식민지 작가들의 작품을 영문학 교육에 대거 포함시키지만 필리핀 문학이 대부분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⁵⁾

영문학 정전의 외연을 확장하는 논의에서 뿐 만 아니라 탈식민주의 문학에도 필리핀 문학 작품은 대체로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영미학계의 경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탈식민주의학(Postcolonial studies) 자체가 유럽 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과 더 적게는 프랑스에 초점을 맞춘다(King 3). 기본적으로 탈식민주의는 이전에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국가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제 분야에 미친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분야에서 지속되는 식민주의의 영향을 포함하여 다룬다. 필리핀은 스페인으로부터 350년, 미국으로부터는 거의 5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언어, 문화, 정치 등의 측면에서 지속성보다는 단절감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별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과 스페인이 식민지화할 당시 필리핀은 부족으로 된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리핀인들은 단일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였다. 19세기에 와서 교육받은 지식인들의 영향으로 점차 필리핀인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말대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필리핀 국가에 대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오랜 식민역사로 인해 생성된 복합적인 문화와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필리핀의 언어

5) 스페인,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차례로 지배를 받은 필리핀인은 그야말로 혼합된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그 문화 또한 혼종적이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동남아 지역에 속하지만 이렇듯 혼합된 문화 때문에 필리핀 문화를 서양 혹은 아시아 문화로 범주화 할 수 없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수많은 언어가 사용된다. 필리핀의 국어는 필리피노(Filipino) 즉 타갈로그어(Tagalog)이지만 타갈로그어와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있고 185개 정도의 지역어 혹은 방언이 있다. 이러한 필리핀의 언어적으로 특수한 상황은 필리핀의 혼합된 문화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필리핀 문학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식민지배로 영어가 필리핀의 공용어가 된 이후 많은 문학 작품들은 영어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다루어져 왔다. 이에 한국에서도 영어로 된 문학작품을 통해 필리핀 문학교육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적 현실 그리고 특별히 필리핀과 미국과의 (신)식민적 관계는 영미국가에서 필리핀 탈식민 문학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영미국가에서 필리핀 문학을 탈식민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미흡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샌 후안(E. San Juan)이 지적하듯이 미국과 필리핀은 지배와 종속이라는 식민적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로 신화화 되어서 미국의 타자로서의 역할이 모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After 4). “형제”라는 이름으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폭력과 대립의 역사는 미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지배자의 관계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에이미 카플란(Amy Kaplan)도 과거부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로서의 미국의 존재는 비가시적이었음을 강조한다.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영토를 탈취하고 원주민을 억압하면서 식민 정책을 펼친 것처럼 미국 역시 이러한 지역에서 제국주의적 프로젝트를 추구했지만 “미국 제국주의는 없다”([T]here is no American Empire. Kaplan 11 재인용)는 “예외주의”를 내세우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자국의 제국주의적 실천들에 대해 부정해왔다. 제국의 정치적 실천은 지배 담론과 공모하여 “미국 제국주의 역사로부터 문화부재, 미국 문화 연구로부터 제국의 부재, 제국주의에 대한 탈식민적 연구로부터 미국의 부재”([T]he absence of culture from the history of U.S. imperialism; the absence of empire from the study of American culture; and the absence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postcolonial study of imperialism. Kaplan 11)를 낳게 되었다.

최근 들어 탈식민주의를 비롯한 여러 비평이론의 도입으로 다양해지고 비평적으로 되긴 했어도 김성곤이 지적하다시피 한국의 영문학과에서는 영미문학 텍스트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쳐왔던 것은 사실이다(15). 따라서 작품에 내포되어있는 지배 이데올로기 역시 영문학 교육을 통해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교수, 커리큘럼 등의 면에서 한국의 영문학 발전에 미친 미국의 지대한 영향을 생각해볼 때, 한국이 필리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미국의 지배 담론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미학계 내에서 필리핀을 탈식민적으로 다룬 연구가 드문 현상은 우리나라의 영문학에

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필리핀 문학 교육 부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필리핀 국가와 문화 그리고 필리핀인들에 대한 이해는 한국 스스로 세운 관점으로 파악될 필요가 대두된다. 더군다나 과거와 달리 빈번해진 한국과 필리핀과의 교류 및 한국 내에 필리핀 이주자의 증가는 한국인들이 필리핀인에 대한 전형화된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역사, 문화에 근거한 진정한 이해를 필요로 함을 반증한다.

사실 1980년대 이후 급부상한 탈식민주의의 영향으로 필리핀학계 내에서도 탈식민주의적 시각이 투영된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저서들이 생산되어 식민지배하에서 파편화된 역사를 재구성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필리핀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구성한 문화, 문학 이론을 토대로 한 필리핀 문학 교육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확산되도록 하기 보다는 이에 대해 피 식민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다양하고도 비판적인 관점으로 검토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필리핀 문학 교육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은 톨렌티노와 호킨의 극작품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통해서 실천된다. 필리핀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고 필리핀인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문화를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주체, 그리고 뚜렷한 정체성의 구현물로 정의해 가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필리핀인을 저항주체로 정의하기

타갈로그어로 쓰이고, 공연된 톨렌티노의 『어제』에서는 식민주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만 이에 대해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연구한 논문은 매우 드물다. 필리핀 내에서 생산된 적은 수의 연구 논문들은 “선동극”(seditious plays)⁶⁾의 측

6)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거의 십년 동안 쓰이고, 공연되고,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극들은 “반미적”이고, 미국 정부에 저항을 하도록 필리핀인들

면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필리핀인들에게 독립을 쟁취하도록 “선동”하는 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필리핀인들이 국가의 해방을 위해 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이 극에서는 또한 종종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체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필리핀 문학 연구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니카노 티옹손(Nicanor Tiongson)은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면서 서구인을 그대로 흉내 낼 줄 아는 필리핀 배우들의 재능은 바로 “필리핀의 문화적 정체성의 부족과 핵심 전통에 대한 문화부족”(The Filipino's own lack of cultural identity and the culture's lack of a core tradition. Diamond 141)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수세기 동안 외부 침입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온 필리핀인들의 정체성은 여러 문화가 합성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캐서린 다이아몬드(Catherine Diamond)의 말대로 “포착하기 어렵고”(elusive), 더 나아가 문화들 사이에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도 없다. 이처럼 혼종적인 필리핀 문화적 정체성과 비교하면 톨렌티노가 그의 극에서 그리는 필리핀들은 외부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인다. 『어제』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과거 필리핀을 지배한 중국, 스페인이 외부 침입자로 규정된다. 다른 한편 필리핀인들은 단순히 식민주의자의 지배와 응시의 대상인 야만인이 아니라 이들의 지배논리에 대해 반박하고, 이들의 폭력적인 지배에 무력으로 맞서서 끝내 국가의 자유를 쟁취해내는 적극적이고 힘 있는 주체로 등장한다. 또한 이들은 필리핀을 크고 작은 부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라 한 국가적 공동체로, 필리핀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외부 침입자들에게 대항하는 존재로서 보는데 이는 바로 필

을 부추겼기 때문에 미국 식민정부는 이들 극에 “선동극”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다(Fernandez 95-96). 도린 G. 페르난데스(Doreen G. Fernandez)는 1902년부터 1906년까지를 ‘선동극 시대’라고 부른다(97). 그녀에 따르면 미국이 1901년 통과시킨 ‘선동법’(Sedition Act)이 필리핀의 독립 주장을 범죄로 만들었고, 따라서 이 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선동극은 일종의 게릴라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97). 1907년 10월 첫 필리핀 의회가 설립되어 독립을 위한 필리핀인들의 투쟁이 전쟁터와 극 무대에서 입법기관으로 옮겨질 때까지 선동극은 필리핀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Fernandez 97).

리핀에 대한 식민주의자의 시선을 뒤집어 본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는 시점에 등장하게 된 톨렌티노의 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마 디존(Alma Dizon)이 언급한 대로 국가적 정체성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666). 미국역사에는 필리핀과 미국 간의 전쟁이 인정할만한 국가와의 ‘전쟁’(war)이 아니라 ‘반란’(insurrection)에 대한 진압이라고 기록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톨렌티노의 극을 비롯한 선동극 들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Dizon 666).

극에서는 필리핀의 민족주의적 투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이 필리핀의 독립혁명을 어떻게 좌절시켰는지가 우의적으로 제시된다. 이때 무엇보다도 외부세력과 필리핀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우하고, 어떻게 지배가 시작되었으며, 식민 지배 하에서 필리핀인들은 어떻게 억압당했고, 이러한 부정의 한 지배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가 무대 위에서 자세히 되살려진다. 과거에는 중국, 현재는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미국에 의해 다시 식민화된 상황에서 피식민자들의 기억은 조용히 먼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과거 역사는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또 다른 식민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명상이 아니라 식민주의 역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뼈아픈 성찰이다. 필리핀인들은 식민역사로 분리된 기억들을 다시 모아서 과거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데, 과거 식민적 지배에 대한 무력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의 힘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더 나아가 식민화의 종식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한다. 릴라 간디(Leela Ghandi)는 식민 상황에 대해 기억하기는 식민화의 압도적이고 지속되는 폭력을 밝히고, 화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한다 (10). 따라서 기억하기는 현재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인 것이다. 지배자들은 착취자, 억압자, 수탈하는 자, 속이는 자이고 필리핀인들은 자신들을 그러한 지배자들의 속 뜻을 간파하고 이들에게 대항하는 단일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이때 필리핀인들을 억압하는 지배자들은 중국 왕을 나타내는 ‘젊은 왕’(Haring Bata), 스페인을 의미하는 ‘눈뜯장님’(Dilatnabulag), 스페인 정부를 나타내는 ‘매의 눈’

(Matanglauin), 카톨릭교 수사를 의미하는 ‘사자’(Halimau), 미국을 의미하는 ‘새로운 사람’(Bagongsibol), 미국정부를 나타내는 ‘우리가 아는 사람’(Malaynatin) 등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외부 침입자이자 지배자들의 압제로 인해 ‘조국’(Mother country)을 의미하는 이난베이온(Inanbayon)과 필리핀인을 의미하는 ‘강에서 온 사람’(From the River)인 타게일로그(Tagailog)는 고통을 당하지만 압제에 대해 분노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끝내는 외부 지배자들을 몰리친다.

이때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행위는 피식민자들이 압제자들에 대해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식민자와 피식민자를 이항대립적 관계로 나누고, 인종문제와 관련된 부조리를 폭력도 불사하는 행동으로 고쳐나갈 것을 주장한다. 그에게 폭력은 피억압자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폭력에 대한 파농의 인식은 톨렌티노의 극에서 주체로서 행동하는 필리핀인들을 통해서 실천된다.

1막과 2막에서 외부 침입자인 중국과 식민주의자인 스페인으로부터의 억압과 수탈은 필리핀인들의 폭력을 동원한 체제전복을 통해서 종식된다. ‘어제’를 그리며 1막에서는 필리핀인 모두가 들고 일어나 중국 왕을 나타내는 하링바타에게 저항하여 끝내 폭동을 일으키고 곧 승리한다. 비록 중국, 스페인, 미국은 필리핀인들이 투쟁하고 저항하는 상대로 등장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차원의 식민주의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필리핀을 지배한 적이 없다. 하지만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하기 전 중국인은 서양 무역상과 국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상들이었다. 이들의 세력은 점차 커져서 톨렌티노가 극을 쓸 당시 빅터 클락(Victor S. Clark)이 말하듯이 “실제로 필리핀의 모든 소매상과 도매상권이 중국인의 손에 있었다”(Practically all the retail and much of the wholesale trade of the Philippines is in the hands of the Chinese. Legarda Jr. 213 재인용). 경제적 관계가 식민주의 핵심에 놓여있음을 생각해 볼 때 중국인이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스페인의 지배 동안에도 중국인들이 건립한 상점들이 교역의 중심 역할을 하였고, 이들의 영향력은 경제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정치와 문화에도 확대 되었는데(Bermudez 144), 이러한 면

은 틀렌티노의 극에서 중국인들을 힘을 행사하는 존재 그리고 저항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필리핀인들의 인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2막에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딜라트나불락, 할림마우, 마탕라우인이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한다”(We love you)라고 말하면서 필리핀인들에게 복종과 재산 헌납을 강요한다.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는 타게일로그는 투옥되지만 끝내는 이들에 대항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스페인 압제자들을 다 무덤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처럼 식민체제를 전복하는 결정적인 힘은 피억압자인 필리핀인들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인데 이러한 폭력은 식민주의자들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저항하는 주체로 자신들을 정의해나가는 과정에서 필리핀인들은 독립정신과 조상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 외부 지배자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을 배반자로 범주화한다. 식민역사를 가진 국가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부 갈등이 바로 타게일로그와 배반자들의 폭력적인 관계를 통해 제시된다. 배반자들은 1막과 2막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필리핀인들이 적으로 규정된 외부세력과 내통하여 자신의 안락함과 부를 추구하는 한편 국가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협 속으로 밀어 넣는다. 1막에서 ‘짐승같은’(Beastly)의 뜻을 갖는 아살헤이옴(Asalhayop)은 중국인과의 갈등으로 죽은 필리핀 조상들의 무덤위에서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조상을 모욕한다. 그는 또한 “가난한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부유한 노예가 되는 게 더 낫지”(It is better to be a rich slave than a poor freeman. 292)라며 중국인 왕에 대해 저항하는 필리핀인들을 밀고한 댓가로 돈을 받는데, 이러한 민족의 배반자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응징은 강력하다. 밀고 사실을 알게 된 필리핀인들은 아살헤이옴을 산채로 태워 죽인다. 2막에서 ‘독사’(A venomous snake)를 의미하는 다훔팔레이(Dahumpalay)는 또 다른 배반자로 스페인 정부인 딜라트나불락에게 타게일로그와 이난베이윤이 음모를 꾸민다고 밀고하면서 그들을 투옥시키라고 부추긴다. 스페인에 저항하여 투옥된 타게일로그는 감옥으로 자신을 찾아온 다훔팔레이를 죽인 후 그의 얼굴을 태워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의 옷으로 바뀐 입을 후 탈출한다. 이처럼 타게일로그는 배반자에게 어떠한 타협이나 용서도 허용하지 않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도덕적 질

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스페인에게 복종적이고 그들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매우 복종적인”(Very obedient)의 의미를 갖는 마수누린(Masunurin)과 “명령에 반대하지 않는”(Without objection to orders)을 의미하는 우아랑투톨(Ualangtutol)과도 차별화하면서 진정한 필리핀인은 압제에 무력으로 맞서 강력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필리핀인들이 자신들을 저항주체로 정의해가는 과정에서 조국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배제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 부역했던 친일세력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제재가 아직도 모색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어제』에 나오는 조국을 배반하는 자에 대한 응징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식민주의의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전의 식민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Future)를 나타내는 3막에서 필리핀인들은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새 식민지배자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새로 도착한 미국을 대표하는 바공시볼과 말레이나틴에게 필리핀인들은 자신들이 독립할 만큼 힘이 있다고 확신을 주려고 하지만 지배자들은 이에 대해 불신한다. 말레이나틴은 “용기, 힘, 지혜, 부와 진정한 통합이 충분하지 않소. 불행에 대비할 수단을 갖춰야 하오. 바공시볼의 군대는 그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오”(“[V]alor, strength, wisdom, wealth and true union are not sufficient;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means to provide against misfortunes; the arms of Bagonsibol are, up to the present, necessary to thee for thy protection. 320) 라며 지배 야욕을 감춘 채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려고 한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설파하듯이 서구인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담론을 통해 동양을 서양에 종속되어있는 존재로서 그려왔다. “동양의 후진성에 대해 서양의 우월함”(Said 7)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듯이 바공시볼 역시 미국을 “약한” 필리핀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오리엔탈리스트적인 담론을 강화한다. 이러한 새 식민주의자의 지배논리를 간파하는 타게일로그와 이난베이윤은 독립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타게일로그는 “나는 내 목적을

실행할 만큼 충분한 힘이 있어요”(I have sufficient strength to carry out my purpose. 331)라며 바공시볼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또한 이난베이욘은 미국이 그들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대는 말했어요. 그대의 국기는 교활한 야망과 거짓의 기가 아니라 반대로 해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깃발이래구요”(Thou saidst that thy flag is not the ensign of cunning ambition and deceit; but, on the contrary, is the ensign of the people that want to be free. 331) 라고 한다. 이 말은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가 1898년 12월 필리핀을 합병하면서 필리핀인들에게 “홀륭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부여하기 위해 “필리핀을 미국의 자유로운 깃발 아래 두어야 한다”고 한 “우호 동화”(Benevolent Assimilation) 선언을 상기시킨다(Hendrickson 158). 맥킨리가 사용한 “미국의 자유로운 깃발”이라는 말이 함축한 모순되고 위선적인 의미는 이난베이욘에 의해 날카롭게 지적된다. ‘어제’와 ‘오늘’에서 필리핀인들이 중국과 스페인의 지배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는 힘의 주체로 등장했다면 ‘미래’에서 일어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들은 지배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저항 담론의 주체가 된다. 이와 더불어서 식민주의자들의 힘에 저항하는 무력 항쟁을 위한 준비도 갖춘다. 이후 계속하여 필리핀의 독립을 거부하던 바공시볼은 필리핀의 어린아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마침내 독립을 허락한다. 미국이 필리핀의 독립을 허용하는 마지막 장면은 비록 단순하게 그려졌으나 극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가 시작되는 시점에 쓰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혁명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직 지배를 받고 있는 중에 독립을 상상하는 행위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해방된 조국을 상상 속에서 그림으로써 톨렌티노는 독립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초연 당시 이 극을 관람하기 위해 왔던 미군들이 극 속에 있는 반미적이고 전복적인 내용을 알게 된 후 무대 위로 올라가 무대세트와 가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한편 극작가이자 타계 일로그 역을 맡았던 톨렌티노는 선동죄로 유죄선고를 받게 된다. 공연 중에 미국

을 상징하는 짚으로 만든 독수리를 찢고, 필리핀의 혁명단체 카티푸난(Katipunan)을 상징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삽입하고, 각기 다른 색깔로 된 옷을 입은 배우들이 모여서 필리핀 국기를 만드는 등의 극적 행위는 미국 식민주의자들로 하여금 이 극을 반미적인 것이라고 간주하게 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 사수엘라(Sarsuela)⁷⁾극 장르의 특징인 춤과 율동을 비롯하여 감정에 찬 구호와 연설 등은 많은 필리핀인들을 대나무로 만들어진 극장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한껏 고취시켰다. 『어제』의 공연을 둘러싼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저버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벌였던 투쟁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피식민자로서 겪었던 두 나라의 공통된 역사는 필리핀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를 한층 도모하게 될 것이다.

극중 필리핀인들은 식민주의자들을 타도해야하는 대상으로 정의하는 한편 자신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을 조직화하고, 외부자들을 죽이고, 속이고 때로는 애원하고 더 나아가 동족이지만 국가를 배반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응징을 하는 강력한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이들이 자유를 추구하면서 지배자들에게 대항할 때 신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죽음과도 직면하게 되지만 독립에의 강력한 의지는 이러한 현실을 다 극복하도록 한다. 또한 현실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필리핀인들은 미국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를 성취한다. 극적 상상력을 통해 자유를 얻어내는 필리핀인들은 저항적 주체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비전을 가진 존재로 자신들에 대한 의미를 확장해나간다. 특별히 여기서 필리핀인의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부각되는데, 이는 다문화적 특성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가 표방하는 이념은 여러 이질적인 문화의 공존이다. 이때 각 문화의 주체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와 유사하게 툰렌티노의 작품 속에서 제시되는 필리핀인들은 외부인과 동족 일부도

7) 사수엘라(Sarswela)는 19세기에 스페인에서 들어온 “산문으로 된 가벼운 오페라”(Diamond 143)인 자수엘라(Zarzuella)가 필리핀인들에 의해 현지화 된 극 공연 형태이다.

배제된 단일하게 정의될 수 있는 주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교육을 위해 제시될 톨렌티노의 작품은 다문화를 구성하는 확실한 주체로서 필리핀을 이해하게 한다.

IV. 혼종적 주체의 식민 문화에 대한 입장

『어제』에서는 서구 식민주의자들의 이항 대립적 지배논리에 의거하여 필리핀인과 식민주의자들을 피지배자와 지배자로 각각 정의하고, 필리핀인들을 억압해 온 식민주의자들을 폭력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리핀인들은 자신들을 저항하는 주체로, 마지막에는 국가의 독립을 상상함으로써 독립된 국가의 주체로 정의해간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예술가』에서는 스페인에 이어 미국에 의한 식민화의 영향으로 생긴 주체의 혼종성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들의 영향으로 빚어진 필리핀 사회 내의 분열과 갈등이 강조된다. 극에서 필리핀인들은 두 식민주의자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스페인과 미국, 이 두 이질적인 문화 형태 중 어느 것과 혼종화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다. 스페인 식민 지배 당시 가졌던 이상과 가치를 따르는 필리핀인들은 스페인 문화와 중첩 혹은 착종된 자신들의 문화를 대항의 근거지로 삼고 필리핀 사회에 미묘하게 그러나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미국의 영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대로 미국화되고 있는 필리핀인들은 스페인 식민 지배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독립혁명과 관련된 구시대적 문화를 폄하하거나 부정한다.

19세기 말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종식되는 동시에 시작된 미국의 지배로 인해 필리핀 사회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 형태들이 서로 갈등하거나 결합하여 생성된 복잡한 탈/식민적 상황에 의해 압도되었다. 필리핀이 서구의 서로 다른 식민체제에 의해 몇 세기에 걸쳐 지배당한 경험은 “전체성,” “계속성”의 결핍(Pablo 195)과 함께 이질적, 혼종적, 심지어 파편화된 문화를 낳게 되었다. 특별히 필리핀이 통일된 국가가 되기 이전에 받은 스페인에 의한 오랜 식민 경험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부족의 일원으로서의 필리핀인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스페인 문화와 혼종화되어 식민 모국의 문화와 “같지만 그렇게 같지 않은 차이를 가진 주체”(a subject of a difference that is almost the same, but not quite. Bhabha 86)가 생성되었으나,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로 또 다른 혼종화의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내/외부, 동일자/타자 등의 뚜렷한 경계로 구분되는 본질주의적인 주체가 아니라 차이를 가진 주체들의 교섭으로 생성된 “순수하지 않은” 혼종성은 바로 서구 세력으로부터 오랜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해온 필리핀 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혼종적인 공간의 생성은 식민주의의 사상적인 토대를 이루는 이항 대립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러한 문화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담론에 대해 저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혼종성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지배문화에 대해 저항성을 새긴다고는 하지만 베니타 페리(Benita Parry)가 비판하는 대로 혼종성에 관련된 논의는 제국주의에 대해 실제 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의 대상이 된다(43). 왜냐하면 이와 같은 담론은 적대적인 권력들에 대한 반식민주의적 재현을 “담론적 거래”의 형상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Parry 43). 수많은 필리핀인들이 희생당한 미국과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배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극 중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선부른 혼종성에 대한 논의는 자칫 식민주의자들과의 폭력적인 대립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오랜 식민 역사의 영향으로 생성된 계층차이에 대한 인식의 날을 무디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서구 세력에 의한 혼종화 과정을 겪는 한편 독립을 위해 투쟁이 지속되어온 필리핀에서 계급, 인종, 세대 등의 다양한 축을 따라서 각기 상이하게 형성되어온 혼종성을 일괄적인 것으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한다.

『예술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질적인 문화 주체인 스페인과 미국이 서로 대립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히 평생을 “국가 민족 문화적 정체성 추구”(연점숙 228)의 문제에 천착해온 호킨은 이 극에서 쇠퇴하는 스페인 문화와는 반대로 거 세계 밀려오는 미국 문화에 압도당해 있는 필리핀 사회가 미국의 영향을 극복하고 바로서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에 의해 패배당해 필리핀에 대한 소유권

을 상실한 스페인의 문화유산과 스페인 식민주의자에 항거한 혁명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과거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사실 호킨의 스페인 식민문화에 대한 향수어린 시선은 필리핀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극의 액션은 1941년 일본이 진주만과 필리핀내의 미국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기 2달 전인 10월에 일어난다. 이때 필리핀 사회는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지 사십년이 넘었고, 극에서 드러나듯이 미국 문화는 필리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미국은 “필리핀에는 국가가 없고, 부족들의 집합”(Arcilla 103)만 존재한다고 여기고 “야만인”인 필리핀인들을 “문명화”시키기 위해 자국의 체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미국은 민주주의적 틀을 가진 대의기관의 설립과 경제발달 그리고 교육 확산을 세 개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서(서용석 226) 필리핀에 적용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체제도입으로 인해 필리핀 사회는 모든 영역에 걸쳐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미국인 교사들, 영어로 실시된 교육, 의복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는 미국산 물건들과 미국식 이름, 미국식 태도와 가치관, 이상까지 필리핀 사회를 압도하였고, 이러한 미국화의 홍수 속에서 필리핀은 “거의 성공적인 미국의 복제품”(San Juan “Transforming” 6)이 되어가고 있었다.

극중에서 미국화된 필리핀의 모습은 등장인물들 중 젊은 사람들의 물질주의적으로 편향된 가치, 회가극 배우들의 다소 경박하고 저속한 태도, 그리고 폴라(Paula)와 토니 하비어(Tony Javier)가 초상화를 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으로 드러난 도덕적인 혼란함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호킨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미국 문화가 필리핀 사회에 끼친 영향의 결과이다. 이러한 미국문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은 돈 로렌조 마라시간(Don Rorenzo Marasigan)과 그의 두 딸 캔디다(Candida)와 폴라이다. 극 내내 로렌조는 무대 위에 등장하지조차 하지 않는데 그의 부재성은 과거 스페인 문화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다른 한편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삶의 지표로 삼는 인물들은 로렌조가 대표하는 구시대의 혼종성을 거부하고 미국이 들여온 물질주의적 가치로 세례 받은 현재 세대들이다. 특별히 로렌조의 아들 마놀로(Manolo)와 또 다른 딸 페팡(Pepang)을 비롯하여 하층

계급 출신의 토니 하비어가 바로 현재 세대에 속하는 인물들로 이들은 캔디다와 폴라의 구시대적 태도를 비판하고, 물질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들은 각기 마라시간 저택과 로렌조의 초상화를 팔아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데, 극은 바로 필리핀 엘리트 계층의 혼종성을 대표하는 저택과 초상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발전한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이고, 필리핀에서도 전쟁이 곧 날거리는 흉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극 중 인물들의 관심사는 캔디다와 폴라가 아버지인 로렌조가 그려서 준 그의 초상화를 생계를 위해서 팔 것인지 아니면 지킬 것인지에 집중된다. 이때 결작으로 알려진 이 초상화를 보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인물들이 인트라무로스에 위치한 마라시간 집을 방문한다. 마라시간 집 하숙생인 20대 청년 토니 하비어는 그림을 사겠다고 하는 한 부유한 미국인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두 자매를 설득하다가 그림을 가지고 폴라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하지만 결국 폴라가 그림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극이 발전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초상화는 과거 즉 스페인에 의한 식민지배로 생성된 필리핀인의 혼종성 혹은 필리핀의 혼종적인 문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하리만치의 상징성이 부과되는 초상화의 특이한 점은 비록 로렌조가 자신의 모습을 그렸지만 희랍신화에 나오는 아이네아스(Aeneas)가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트로이가 함락당해 불길에 휩싸이자 아버지인 안키세스(Anchises)를 업고 도시를 빠져나가는 내용을 모델로 하고 있다. 로마 신화 속에서 자세히 다루어지는 아이네아스는 로마의 건국과 관련된 인물이다. 따라서 『예술가』에서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필리핀은 아직 주권 국가로서 탄생하기 전의 상태에 있고, 몇 년 후에 필리핀 공화국이 건립됨을 생각해 볼 때 국가 건립이라는 측면에서 신화와 평행하게 되는 로렌조의 초상화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그림을 통해 로렌조는 현재 세대가 “과거의 이상과 전통적 신념”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있고, 이러한 세태를 걱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은 과거 세대임을 보여준다(Pablo 196). 더 나아가 로렌조는 과거의 이상과 전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그림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

여기서 로렌스가 업고 가야할 만큼 귀하게 여기는 전통과 과거의 가치에는 스페인의 지배역사 동안 축적된 문화 그리고 이와는 모순적이게도 스페인으로부터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자 하는 열망이 함께 혼합되어 배태되어있다. 그림 속 늙은 로렌조가 나타내는 과거에는 특별히 필리핀의 사회 지도자계층이 주도했던 독립혁명의 정신이 관련되어있다. 19세기에 필리핀인들은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바로 교육받은 일루스트라도(Ilustrado) 계층이 있었다. 이들은 스페인 혹은 다른 유럽국가에서 유학하거나 마닐라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존중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이들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필리핀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독립 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898년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 필리핀은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 이제는 미국화라는 또 다른 존중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필리핀의 지도자 계층은 처음으로 필리핀의 독립을 위하여 혁명을 주도하였지만 극 중 잡지 편집장인 피트(Pete)에 따르면 그들은 미래를 다룰 만큼 위대하지 않아서 밀쳐지고 잊혀졌다. 그는 계속하여 과거 혁명세대의 무용함을 지적한다.

나는 현재입니다. 나는 과거에 의해 판단 받는 걸 거부하겠소. 오히려 과거가 나에게 판단 받아야 해요. 내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면 과거도 그것과 관련이 있소. 두렵다고? 누가 두려워하는 거요? 나는 여기 서서 당신을 마주보고 있소. 로렌조씨,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당신은 무슨 일을 했기에 나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다는 거요?

I'm the Present— and I refuse to be judged by the Past! It is the Past rather that has to be judged by me! If there's anything wrong with me, then the Past had something to do with it! Afraid? Who's afraid? I stand here and I face you, Don Lorenzo, and I ask you: What were you and what did you do that you should have the right to judge me? (29)

피트가 언급하는 과거에는 바로 실패한 혁명세대 그리고 필리핀 지도층의 스페인 문화와의 혼종화가 자리 잡고 있고, 그는 이러한 과거는 현재의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고 외친다. 더군다나 희랍신화를 모델로 한 초상화속의 로렌조는 필리핀 국가와는 완전히 유리되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가 “무례하고, 상스런” 현재보다 자신을 훨씬 우월한 위치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트는 주장한다. 즉 로렌조, 초상화, 그리고 그가 나타내는 과거는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있어서 대부분의 가난하고 억압받은 민중들의 삶을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에 대하여 국가의 독립을 위한 혁명을 이끌 정도로 그들의 업적은 위대했지만 이제 그들은 가족의 생계도 꾸려가질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무력하다. 피트는 혁명세대가 현재 어떤 힘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극중 필리핀인들이 미국의 식민지배하에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식민 상황이 내포한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극에서 스페인과 미국은 식민지 모국이지만 식민주의자들 즉 스페인인이나 미국인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필리핀의 식민 상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식민담론과 연관시켜볼 수 있는데, 미국은 지배담론을 통해 필리핀을 지배 대상이 아니라 형제의 국가로 만들면서 미묘하게 그러나 광범위하고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미국화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특별히 혁명세대가 대표하는 스페인 혼종적 문화를 거부한다. 마닐라의 빈민가 톤도(Tondo)에서 태어난 토니는 특히 스페인과 혼종화 된 문화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인에 의해 입양되어 미국에서 성장한 후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온 후 마라시안의 집에서 하숙하는 그는 자신의 비천한 출신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초상화를 보면서 “빌어먹을 것은 항상 나를 보고 있어, 항상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The damn thing's always looking at me, always looking down at me), 나는 그 미소가 정말 싫어(I hate that smile. 21)”라고 하는 토니의 말에서 감지되듯이 상류층을 대표하는 그림 속 로렌조의 모습에서 그는 위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극도의 혐오의 감정을 드러낸다. 필리핀의 엘리트 계층의 문화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문화로 빈민가에서 살았던 그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성장한 그는 누구보다도 미국의 자본주의적 사고를 추종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엘리트층이 제시하는 스페인 문화와의 혼종성은 그에게 당연히 거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로렌조의 초상화가 세대와 계층별로 다른 의미를 가졌듯이 인트라무로스 (Intramuros)에 위치한 마라시간의 저택은 필리핀의 혼종성이 구현된 장소이다. 과거 식민시대에 스페인 식민 통치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인트라무로스에 위치해 있는 이 저택은 예술가인 로렌조와 그의 자녀들이 지배 문화를 모방하고 배우던 토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족들은 저택을 매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문화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캔디다와 폴라 그리고 물질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마놀로와 페팡의 생각과 태도는 특히 마라시안 저택의 처분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조된다. 캔디다와 폴라는 하비어를 하숙생으로 들이고, 또 스페인어와 피아노 레슨 광고를 하려고 하고, 취직하기 위해 보건국을 방문하기도 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저택을 유지하고,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고 한다. 비록 마놀로와 페팡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빠져있는 아버지와 여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 생색을 내며 끊임없이 저택을 팔도록 캔디다와 폴라에게 종용한다. 과거 문화를 단순히 물질적 가치로만 재는 이들의 태도는 저택을 팔게 되면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어떻게 나눠 가질 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일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나는 샹들리에를 갖겠어. 우리 집 현관에 필요해. 그리고 서재에 있는 대리석 탁자도 가질 거야. 마놀로, 거실에 있는 모든 가구는 가져도 돼. 피아노만 빼고. 피아노는 내가 가질 거야. 나는 식당 세트를 가질 거야. 접시와 은 식기류는 나누자.

I'll take that chandelier; I need it for my front hall. And I'll take the marble table in the study. You can have all the furniture here in the sala. Manolo, -- except the piano. I'll take that. And I'll take the dining room set. We can divide the plate and the silver. (50)

세간살이를 나누는 이들은 자살 시도 후 방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보내고, 캔디다와 폴라를 각기 자신들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 처럼 부리기를 원한다. 마놀로와 페팡은 자신들이 얻게 될 이득 때문에 가족이 기대고 있는 가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온 저택뿐만 아니라 가족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호킨이 부정적으로 그리는 미국화 즉 자본주의적인 면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로렌조의 자녀들은 저택에서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실천해온 스페인 문화 형태를 모방한 필리핀의 혼종적인 문화에 대해 매우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사실 로렌조와 같은 혁명세대에게 사상의 기초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혼종성에 놓여있는데, 이 점은 스페인 식 교양 모임이나 종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극에서 상세히 다루어지는 터툴리아(Tertulia)는 바로 필리핀 엘리트 계층이 향수에 젖는 스페인의 문화유산이다. 스페인어로 ‘모임’을 뜻하는 터툴리아에 참가한 사람들은 시를 읽고, 자주엘라 극 공연, 이탈리아 가수, 그리고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데, 캔디다와 폴라 그리고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터툴리아에 참여한 적이 있는 카마초 비토이(Camacho Bitoy)는 이때를 회상하고 일부를 극화해 보여준다. 상상의 손님들을 접대하며 폴라는 필리핀 상류계층이 즐기던 문화 모임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 비록 캔디다와 폴라 그리고 로렌조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스페인 문화와의 혼종성은 미국화 되고 있는 필리핀의 현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지만 페팡은 이러한 혼종적인 문화를 식민지 모국의 문화에 대한 회화적인 모방으로 폄하한다. “아버지의 토가(스페인식 예복)는 그냥 담요였고, 그의 옥좌는 낡은 상자였고, 그의 왕관은 낡은 종이 꽃 뭉치였다는 걸 너는 잊었구나”(You forgot that his toga was only a blanket and throne only an old box, and his crown only a bunch of old paper flowers. 54)라고 말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페팡은 물질적 가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로렌조가 소중하게 여기는 혼종적 문화는 식민지 모국의 문화와 대비되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된다.

혼종적인 필리핀 문화에 대한 가족 간의 서로 대립되는 의견은 계층과 세대

간의 차이로 확대되지만 비토이는 엘리트 계층의 혼종성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캔디다 그리고 플라와 함께 터틀리아 모임 장면을 극화해 보일 정도로 이 혼종적 문화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구두닦이, 신문팔이, 웨이터, 부두 노동자, 빵집 견습생 등과 같은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했다. 이러한 상황은 마라시안 저택에 모이던 사람들을 경멸하게 했고, 그가 상류 문화를 즐겼던 마라시안 저택, 로렌조와 아버지의 세계와 작별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로렌조와 아버지가 가르친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하였다. 상류층이 대표하는 스페인 문화와의 혼종성은 “신발도 없고, 돈도 없고, 담배도 없고, 어슬렁거릴 여유도 없는데”([N]o shoes, no money, no smoking, no loitering. 47)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그에게 어떠한 힘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비토이는 점점 미국화 되어가는 필리핀 사회에서 현실적, 물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로렌조의 초상화를 본 것을 계기로 점차 과거 문화유산의 힘을 다시 깨닫게 된다. 그림을 본 후 마라시안 집을 떠날 때 그에게 “바깥세상은 멀어져가는 듯이 보였고(the world outside seemed to be muffled),” 자신이 “해방”(released)됨을 느꼈다”(48).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아버지를 다시 찾았어”(I had found my father again. 48)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과거 유산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혼종적 문화에 대한 그의 확신은 캔디다가 “우리 아버지를 자진해서 업을래요?”(Are you willing to carry him on your back? 108)라고 물었을 때 “그의 모든 조상신과 함께요!”(With all his ancestral gods! 108)라며 과거의 모든 유산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

인트라무로스, 터틀리아 등과 같은 문화 형태는 필리핀 지배 엘리트들에게 그들의 가치관, 이상, 의식을 구성하는데 작용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문화 형태들은 식민지 모국인 스페인의 문화와 “같지만 그렇게 같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혼종성이 필리핀 엘리트들에게는 주체의 근간이 되었다. 퇴락한 예술가 로렌조와 극의 마지막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앞세우고 하는 마닐라 해전 축제 행렬을 보기 위해 등장하는 나이든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들의 혼

종성은 더 이상 스페인어가 통용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미국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캔디다와 플라 그리고 과거 터툴리아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는 과거 문화유산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할 것을 다짐한다.

극의 끝부분에서 비토이의 내레이션은 전쟁으로 마라시간 저택과 로렌조 가족 모두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포격으로 인트라무로스는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었고, 마라시간 저택도 역시 그 포화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거센 미국화의 바람이 과거 문화유산의 자취를 휩쓸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토이는 조상의 유해에 대고 맹세를 한다. “나는 계속하기를 약속합니다. 나는 보존할 것을 약속합니다!”(I promise to continue, I promise to preserve! 116). 비토이는 결국 필리핀인의 뿌리는 스페인 문화와의 혼종성이고 이것은 끝까지 지켜야 할 유산임을 확인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성적, 민족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포용하는 감수성 있는 태도를 배양한다고 한다면 혼종성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또 다른 문화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론의 뿌리는 다르지만 다문화주의가 표방하는 다양성은 여러 문화가 뒤섞이는 혼종성과 여러 면에서 유사함을 보인다. 필리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종, 문화, 계층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다르게 혼합되는 점을 제시하는 『예술가』는 단일한 문화의 신화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의 실제적인 양상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스페인과 미국 문화의 영향이 서로 대립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 사회가 마치 스페인과 미국문화중 하나와의 혼종성을 선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필리핀은 토착민과 그들의 문화, 스페인과 미국의 인종 및 문화 등이 배태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문학과에서 『예술가』를 포함하여 교육한다면 다양성을 표방하는 다문화주의의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전에는 없었던 타자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것을 요구한다. 다문화 교육은 바로 다양한 인종 및 문화 출신의 이주자들과 공존해야 하는 한국인에게 타자에 대한 이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과된 일종의 사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문학이 다문화 교육의 토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특별히 대학에서의 필리핀 문학 교육을 전제하고 있는데, 기존의 영미문학정전을 고집하기 보다는 영어로 된 필리핀 문학 교육을 통해 좀 더 유연한 영문학 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필리핀 문학 교육은 다문화 교육으로 거듭 날 수 있어 영문학 더 나아가서 인문학 교육 확장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문학이 다문화 교육의 콘텐츠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톨렌티노의 『어제』와 호킨의 『예술가』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두 작품 모두 필리핀에 대한 외부 세력의 침략과 식민화로 인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탈식민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원래 미국 식민주의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타갈로그어로 쓰이고 공연된 『어제』에서는 필리핀인들이 역사를 통해 자행된 식민주의자들의 억압과 폭력을 드러내고 이에 끝까지 대항하여 자유를 되찾는 주체로서 자신들을 정의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호킨의 『예술가』는 범람하는 미국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혼돈과 저속함에 저항하기 위해 과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때의 정신을 되살리고, 필리핀 문화의 일부는 스페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변혁기에 나온 톨렌티노와 호킨의 작품은 식민주의자로부터의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필리핀인들이 자신들을 피식민자가 아니라 싸우고, 응징하고, 타협하고, 모색하는 주체로 정의해나가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드러낸다. 아울러 『예술가』에서는 식민적/탈식민적 사회에서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로부터 생성된 필리핀인들의 각 문화와의 혼종화에 대한 욕망과 이에 대한 저항이 제시되면서 필리

핀 사회가 직면한 지속적인 혼종화에 대한 회의를 극화해내고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이 모든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후 서구에 대한 혼종화에의 욕망과 본질주의적인 정체성 확립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필리핀의 정체성을 모색해 왔고, 이 두 극작품은 필리핀인들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에 천착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다양하고 차이를 가진 문화들의 평등한 공존으로 봤을 때 각각의 문화들은 단일하고도 순수한 것으로 상정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화가 혼합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어제』와 『예술가』에서 다루는 주체의 단일함 그리고 문화의 혼종성은 다문화적 교육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탈식민주의는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정치적 문제에서부터 사회구조와 경제체제 그리고 문화 현상들을 지배와 억압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김성곤 13) 텍스트를 탈식민적 관점으로 읽는 작업은 식민역사를 갖는 국가와 그 국민을 서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피식민자의 관점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이해로 나아가게 한다. 따라서 우리의 필리핀에 대한 이해가 미국의 지배담론을 따라 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필리핀 문학작품 읽기는 식민주의자의 편견과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우리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필리핀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필리핀과 한국이 각기 경험한 식민역사는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식민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얻게 되는 이러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다문화적 사회를 건립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적 사회, 대학에서의 필리핀 문학 교육,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필리핀 예술가의 초상화』, 탈식민적 관점

인용 문헌

- 기현주. 「다문화주의적 사회를 위한 ‘지역 정진’ 확립과 필리핀계 미국인 작품 읽기」. 『정진 형성의 논리』. 이형대 엮음. 소명출판사. 2013. 479-508. Print.
- 김민정. 「필리핀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한국의 사례」. 『한국여성학』. 28.2 (2012): 33-74. Print.
- 김성곤, 「탈식민주의 책읽기와 문학 연구」. 『외국문학』 38. 열음사, 1994. Print.
- 김영훈. 「한국 대학에서 영문학교육의 해체와 그 해체의 (불)가능성」. 『영미문학 교육』 28.2. (2014): 83-106. Print.
- 박찬부. 「21세기에 다시 보는 한국의 영문학 교육」. 『영어영문학』 47.3 (2001): 813-146. Print.
- 서용석. 「필리핀의 식민지 경험과 사회발전: 1898-1946」. 『한국비교사회학회』. 1997. 200-269. Print.
- 이형식. 「깨뜨리고 다시 만들기: 한국에서의 새로운 영문학 커리큘럼을 위하여」. 『영어영문학』 44.3. (1998): 749-769. Print.
- 연점숙. 「국가, 민족, 문화 정체성 추구로서의 닉 호킨 문학」. 『인문학연구』. 8.0 (2004): 225-238. Print.
- 윤인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2007): 251-291. Print.
- 정정호. 「탈근대 인식론과 21세기 영문학 교육 - 하나의 시론」. 『미래영어영문학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21. 2009. Print.
-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1.1(2012). 113-143. Print.
- 황효식. 「문화연구와 영문학: 한국의 영문학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제언」. 『현대영어영문학』. 51.2 (2007): 71-91. Print.
- 황정미.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 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 『담론 201』 13:2 (2010): 93-123. Print.

- Arcilla S.J., Jose S. *An Introduction to Philippine History*. Ateneo de Manila P, 1998. Print.
- Bermudez, Jennifer C. *The Organic Intellectual in Filipino Drama 1903-1907: From Resistance to Agency*. Thesis. Ateneo de Manila University, 2014. Print.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Print.
- Diamond, Catherine. "Quest for the Elusive Self: The Role of Contemporary Philippine Theatre in the Formation of Cultural Identity." *The Drama Review*. 40.3 (1996): 141-169. Print.
- Dizon, Alma Jill. "False Vision in Two Plays by Aurelio Tolentino." *Philippine Studies*. 43.4 (1995): 666-680. Print.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1963. Print.
- Fernandez, Doreen G. *Essays on Philippine Theater History*. Ateneo UP, 1996. Print.
- Ghandi, Leela.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Columbia UP, 1998. Print.
- Hendrickson Jr., Kenneth E. *The Spanish-American War*. Greenwood P, 2003. Print.
- Joaquin, Nick. *A Portrait of the Artist as Filipino: An Elegy in Three Scenes*. Manila: A. S. Florentino, 1966. Print.
- Kaplan, Amy. "'Left Alone with America' The Absence of Empire in the Study of American Culture." *Cultures of United States Imperialism*. Amy Kaplan & Donald E. Pease. Ed. Duke UP, 1993. 3-21. Print.
- King, Richard. "Introduction: Dislocating Postcoloniality, Relocating American Empire." *Postcolonial America*. Ed. Richard King. U of Illinois P, 2000. 1-19. Print.
- Legarda, Jr., Benito. *After the Galleons: Foreign Trade, Economic Change and*

- Entrepreneurship in the Nineteenth-Century Philippines*. Ateneo de Manila P, 2002. Print.
- Pablo, Lourdes Busuego. "The Spanish Tradition in Nick Joaquin." *Philippine Studies*. 3.2 (1955): 187-207. Print.
- Parry, Benita. "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Ed. Bill Ashcroft et al. London: Routledge, 1995. 35-44. Print.
- Said, Edward. *Orientalism*. Vintage Books, 1979. Print.
- San Juan, E, Jr. *After Postcolonialism: Remapping Philippines—United States Confrontation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 2000. Print.
- . "Transforming Identity in Postcolonial Narrative: An Approach to the Novels of Jessica Hagedorn." *Post-Identity* 1.2 (1998): 5-28. Print.
- Tolentino, Aurelio.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he Filipino Drama*. Arthur Stanley Riggs. Manila: Ministry of Human Settlements, 1981. Print.
- Young, Robert. *Postcolonial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Blackwell P, 2001. Print.

The Possibility of Filipino Literature as the Basis for a Multicultural Society:

Reading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nd *The Portrait of an Artist as Filipino*

Abstract

Ki, Hyunjoo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Filipino literature as the basis for a multicultural society by discussing two representative Filipino plays. Taking into account that Korean society is becoming multicultural due to the increase in Chinese Koreans, migrant workers, and foreign brides among others, it is imperative to provide Koreans and others with a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mutual understanding and egalitarian relationships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re necessary, but policies have emphasized the assimilation of migrant workers and foreign brides to Korean society. At this point, I argue for Filipino literature education as multicultural for college students. The rationale for this is that the number of Filipino immigrants or workers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immigrants. In addition, Filipino literature has rarely been taught in colleges despite the fact that some postcolonial and multicultural literary works from other previously colonized countries have been canonized.

The methodology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examined through the discussion of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by Aurelio Tolentino and *The Portrait of an Artist as Filipino* by Nick Joaquin. The two plays, produced in the times when the Philippines were under colonial powers, represent Filipinos not as merely the oppressed but as subjects fighting, killing, and negotiating with Chinese, Spanish, and American colonizers in sequence to obtain

independence. The reading of the two plays from postcolonial points of view will help Koreans to look at and interpret Filipino history and culture from their own viewpoints, freed from ideologies and prejudices of the west.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by promoting Koreans' understanding toward Filipino immigrants and Filipinos.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Filipino literature education in college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he Portrait of an Artist as Filipino*, postcolonial perspective

기현주(단독연구)

세종대학교

논문투고일: 2017년 7월 15일

논문심사일: 2017년 7월 21일 ~ 8월 2일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11일